온 가족이 전법·포교사…“우리는 부처님 심부름꾼”

우리는 불자 3代

① 강필화 보살 3대 가족

99세에도 경전 손에 쥔 노보살
스님, 사회복지사, 상담사 딸들
“법사가 되겠다”는 MZ손자까지
3대가 각자의 자리서 전법 매진

부모의 모범적인 신행활동으로
자식들도 자연스레 부처님 인연
불교와 함께 가족의 삶 영글어
“다음세대에도 전법 이어질 것”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연화원광림사에 모인 불자 3대가 ‘사랑해’를 의미하는 수어로 불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들은 “가족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부처님 길을 따르며 살아가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필화 보살은 일생을 염주와 경전을 손에서 놓지 않아 자식들의 귀감이 됐다.


정옥 씨가 상담사로 일하며 권선했던 금강경 사경노트를 펼쳐 보이고 있다.


1월 20~28일 법산 스님과 함께 한 인도성지순례는 3대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지난 1월 20~28일, 전 동국대 이사장이자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의 〈금강경〉 독송 7만독 성만을 기념하며 진행된 인도성지순례에서 단연 눈에 띈 것은 아흔아홉 살 백수(白壽) 노보살이었다. ‘내일모레’가 100세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꼿꼿하고 곧은 허리, 또렷한 말투, 길고 고단한 여정에도 손에서 염주를 놓지 않는 기도 열정까지 99세 강필화 보살(덕성)은 30여 청장년 불자들 사이에서 어느 하나 뒤처지는 법이 없었다. 강필화 보살은 이번 인도순례에 5~60대 딸들 그리고 MZ세대 손자와 함께했다. 강 보살은 “3대가 함께한 인도순례는 그 어느 성지순례보다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성지순례는 20년간 맏딸이었다가 출가해 50여 년을 스님으로 산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과 함께였기에 잊지 못한 추억이 됐다.

인도성지순례의 감동이 채 가시지 않았을 2월 13일, 불자 3대(代)를 만나기 위해 서울 연화원 광림사를 찾았다. 연화원은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이다. 이사장 해성 스님은 불교의 평등 자비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3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장애인 복지에 힘쓰며 연화원을 이끌어오고 있다. 서울 송파에 위치한 6층짜리 빌딩 제일 꼭대기 층에 광림사 법당과 공양간을, 5층에는 연화원 사무실과 장애인 직업훈련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3층도 세를 얻었다. 세들어 사는 ‘남의 집’이지만 오늘의 주인공 불자 3대가 모여 일하고 기도하고 공양하는 공간이다.

강필화 보살은 맏딸이었던 해성 스님이 출가해 장애인들을 위한 법당을 마련했을 때부터 광림사 공양주로 살았다. 법당을 청소하며 밥을 짓고 남은 시간엔 기도한다. 강 보살의 넷째 방정미(60·반야심) 씨는 5층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장애인과 함께하는 전국 꽃배달 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있다. 다섯째 방정옥(58·수향) 씨는 3층에서 상담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정옥 씨의 아들이자 스피치 코치인 이상윤(30·해윤) 씨의 스튜디오도 옆방에 위치해 있다. 한 건물에서 3대가 각자의 영역에서 따로, 때로는 같이 부처님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날 인터뷰를 위해 3층에 모인 이들은 “3대에 걸친 불자가족이 탄생할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엄마의 지극한 불심에서 비롯됐다”고 입을 모았다.

“엄마가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불교를 만났을까요.”

정미 씨는 엄마하면 떠오르는 것은 오직 “기도”라고 말했다. “엄마를 생각하면 항상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사경하는 모습, 염주를 돌리던 모습이 떠오른다”는 정미 씨는 엄마 덕분에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됐고, 해성 스님이 장애인 복지를 하면서 20여 년 전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가 됐다. 정미 씨는 “엄마와 스님의 기도 덕분에 부처님 아래서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졌다. 특히 복지로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행복하다”며 불자로서, 또 사회복지사로서 남다른 애착을 드러냈다.

아이를 갖고 사경으로 태교를 했다는 정옥 씨는 “엄마가 하는 것 그대로 했을 뿐 ”이라며 웃었다. 정옥 씨는 “아들 상윤이가 스스로 사경을 하며 최근에는 법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기뻤다”면서 “아들이 사경하게 〈법화경〉을 달라고 했을 때, 부모로서 재산을 준 느낌”이라고 말했다.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옥 씨는 개인적인 신행활동을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법활동을 이어간다. 정옥 씨는 “상담을 하다보면 다른 것보다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명감이 든다”고 말했다. 힘들고 지친마음을 털어놓는 이들에게 〈법화경〉 사경을 적극 추천한다는 그는 “직접 만든 법화경 사경노트를 보시하고 방법을 알려주면서 나락에 떨어질 것만 같은 사람도 여럿 살렸다”면서 “완성된 사경노트를 가지고 오면 부처님전에 기도 올려주는 것이 상담사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마무리”라고 말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옥 씨는 “지금 생각해보면, 상담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가 돈벌라고 주신 재능이 아닌 전법하라는 뜻 같다”고 말하며 미소지었다.

정옥 씨의 신행활동은 아들 상윤 씨의 삶에도 큰 토대가 됐다. 유튜브 채널 ‘이상윤의 언어’를 운영하며 스피치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상윤 씨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또래들에게 전법하는 그날을 꿈꾸며 지금 불교공부와 명상에 흠뻑 빠져있다.

이들은 가족 모두가 부처님 길을 함께 걸어가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우리 가족은 항상 모이면 기도, 부처님 이야기뿐이에요. 간혹 해성 스님이 자리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기도하고 공부하며 생겼던 궁금증을 묻고 답을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우리 가족의 인생과 삶이 묻어나는 시간들이죠.”

해성 스님은 “예전에는 수행에 방해가 될까봐 가족을 멀리했지만, 가족 포교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포교가 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면서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일상 속 전법을 해나간다면 불자가족의 탄생은 4대로, 5대로, 그 이후에도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딸들과 손자의 인터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강필화 보살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백수(白壽)”라고 말했다. 강 보살은 “가족들이 각자의 재능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부처님 길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며 평생 불자로 산 보람을 느낀다”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도 부처님 법이 전해져 부처님 심부름꾼으로서 행복한 가정이 이어지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4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4차 산업혁명의 불교적 의미 고찰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세대별, 대상별 다채로운 법회프로그램

1일차(8월 28일, 수)	2일차(8월 29일, 목)	3일차(8월 30일, 금)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마음불사 도량불사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4차 산업혁명의 불교적 의미와 대응	
한마음과학	화엄세계: 주제가 있는 방	



일 정 : 2024년 8월 28일(수) ~ 30일(금) 2박 3일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강사진 : 박종래 교수(서울대), 이창수 교수(경희대), 황수경 교수(동국대)등
교육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정 원 : 50명 (선착순 마감)
문 의 : 031-470-3200 (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